

탈북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하원¹, 채경희^{2*}

¹충신대학교 산업교육학부, ²충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The Influence of Resilience of the North Korean Adolescents on their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Ha-Won Lee¹, Kyung-Hee Chae^{2*}

¹Dept. of Industrial Edu, ChongShin University

²Dept. of Christian Edu, Cho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탈북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적응유연성이 탈북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청소년(10세-25세)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탈북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응유연성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특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daptive flexibility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in order to examine how they should see themselves and cope with various situations, and analyzed the effect of their resilience on their self-esteem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The study subjects were 223 North Korean adolescents (10 - 25 year olds) living in South Korea.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statistical program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 resilience of North Korean adolescen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ir self-esteem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In particular, resilience had a high correlation with self-esteem, and self-esteem had a high correlation with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In addition, self-esteem was the mediating factor between resilience and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The self-esteem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played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Therefore, professional protection and support should be provided with the help of related experts such as youth leaders and counselors who would be able to enhance the self-esteem of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Key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Resilience; Self-Esteem;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Chae(ChonShin Univ.)

Tel: +82-2-3479-0534 email: khchae@chongshin.ac.kr

Received August 21, 2017

Revised September 14, 2017

Accepted September 15, 2017

Published September 30, 2017

1. 서론

1990년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에 이르러 그 수가 감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을 기준으로 총 3만 명에 이른다[1]. 이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탈북자의 40%정도가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임을 알 수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가족단위로 탈북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탈북자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탈북자 정부지원정책은 대부분 성인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2]. 아직까지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또한 대부분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이 실태조사에 그치거나 포괄적인 영역으로 그 주제를 다루다 보니 탈북청소년이 남한에 정착하기 위한 정확한 대책이나 지원정책이 없이 적응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의 적응문제를 별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의 적응 상황은 통일사회의 평화공존과 사회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의 적응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일 후 동과 서독이 대혼란을 겪었던 것을 교훈삼아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발전은 최대화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한에 입국한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사회와 다른 문화적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탈북청소년은 남한에 입국한 후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을 낯설어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3].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삶에 대한 자세와 문제해결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이고, 여러 형태의 성공과 좌절을 통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탈북청소년이 남한에서 사회부적응 현상을 보이거나 일상의 문제를 접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은 개인적인 기능이 낮아서라기보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어 나타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탈북청소년 역시 사회적 욕구를 가지며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화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며,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 속에서 적응유연성이 길러지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탈북청소년 개인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

을 스스로 높여 남한사회적응에 기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4].

탈북청소년의 적응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은 남한사회에서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요구와의 조화 혹은 부조화는 시간 혹은 상황에 따라 충분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며, 현재 적응에 있어 약간의 문제를 지녔다고 해서 탈북청소년이 소극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고취를 위해 이 질성을 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통일에 대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의 ‘적응유연성’을 살펴보고, 적응유연성이 탈북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되튐, 탄력, 탄성(elasticity), 복원력, 병·불행으로부터의 신속한 회복력, 쾌활성, 압력이 가해질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는 물질의 유연함, 탄성을 의미하며, 라틴어의 ‘resiliens’에서 유래된 ‘resilience’라는 용어는 원래 물체의 신축적 혹은 유연한 성질을 일컫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5].

Anthony와 Cohler(1987)은 적응유연성을 ‘어떻게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와 외상에 대처하는지를 다루는 총체적인 개념으로 대처결과로서의 역량 및 적응과 유사하게 성장과 희망을 다룬 것’으로 정의했고[6], Stewart 외(1997)는 ‘중대한 변화, 역경 또는 위협에 직면하여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으로 이 능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개인과 환경의 보호요인들에 의해 향상된다’고 정의하였다[7]. Saleebey(2002)는 적응유연성을 ‘엄청난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시련, 자기 정당화, 성장해가는 적극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8].

이러한 적응유연성은 흔히 보호요인의 개념과 중복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적응유연성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보호요인은 적응유연성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요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호요인은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문제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이다. 실제적으로 적응유연성이 강한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상처를 덜 받거나 역경에 취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9]. 적응유연성은 적용되는 분야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자아탄력성, 적응유연성, 극복력, 복원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고, 그 개념에 있어서도 분명하고 명확한 정의 없이 중복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을 통합적인 구성개념으로 보고자 하였으며, 적응유연성에 조작성 개념을 ‘문화적 변화에 따른 적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개인내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으로 정의한다.

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하여 가치 있다고 믿는 유능함과 중요함의 감정, 느낌과 생각 등을 의미한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가치 평가로써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성격을 건전하게 발달시켜주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개인차원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도, 행복감, 자신감이 높고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자세로 임한다[10].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삶을 부정적인 자세로 대하면서 열등의식과 소외감 및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11-12].

탈북자의 자아존중감은 남한 사회로 이주하여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다. 탈북자들은 생존의 사투를 건디며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그들의 삶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탈북자가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13-14]. 탈북자의 자아존중감은 탈북자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자아존중감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이 필요하다[15]. 탈북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내에서 느끼

는 소속감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및 이웃과의 상호작용성이 향상될 수 있다[16]. 따라서 탈북자의 자아존중감은 남한 사회생활의 다양한 경험에 있어서 문제해결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주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2.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은 문제를 변화시키는 인지적 활동으로 현재에서 목표의 상태까지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된다[17]. 문제해결과정은 ‘삶 자체’로 보고, 인생을 살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 인간이 적응하는 과정, 또는 적응과정을 통한 최대의 만족감을 얻는 과정이다[18].

사람은 살아가면서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데, 쉽고 간단한 문제도 있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있다. ‘사회적 문제해결’이란 이렇게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응적인 대처 반응을 찾아내거나 발견하려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과정이다[19]. 사회적 문제해결은 개인적인 문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소집단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생활이 모든 종류의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20].

탈북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남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부적응 행태를 보이고, 이탈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21]. 또한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외로움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22].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은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동안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하게 잘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2.4 적응유연성과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문제에 대한 지각에서부터 결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문제해결자의 정서, 성격, 가치, 자기평가(자아개념, 자기효능감) 등은 문제해결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23]. 또한 자아존중감이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은 자존감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서도 추론할 수 있다. 이제까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위험요소들을 분석하고, 밝혀진 위험요소들의 영향을 최

소화함으로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위협요인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호해 주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적응 유연하게 극복하고 발달해 나가는 청소년들의 대한 연구는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이해하는 데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적응유연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 개인적인 측면에서 성취 지향적이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은 성향이다[24]. 이러한 적응유연성은 자아존중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연하게 대체하는 능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자신감과 자기수용성 등이 높고 [25], 위협요인에 노출되더라도 정상적인 발달궤도를 유지하는 특성의 성향은 청소년 시기에 자기애의 형성이 높거나 자아탄력성이 높은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6]. 또한, 문제 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인으로는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자신감, 자기수용성, 낙관적 태도, 높은 지능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좋은 관계 화합 등과 같은 가정적 요인, 사회지적적인 관계망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을 들고 있다[27].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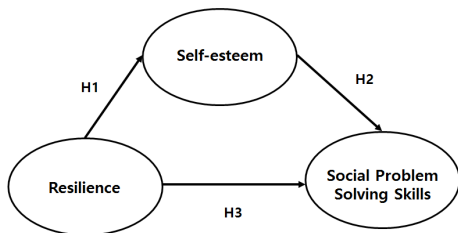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탈북청소년(10세-25세)을 대상으로 남한 내 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을 퇴소한 후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한정되었으며, 표본추출 방법에 대해서는 북한이탈 청소년관련 학교, 복지관, 단체 등의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 연구의 원칙상 확률표집 방법을 사용해야 하겠으나, 탈북청소년이

라는 특수성 때문에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e)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23.0과 AMO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측정문항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a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위한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 연구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실시하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김현이(2006)의 연구와 이해리와 조한익(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영적, 지지, 의지, 강인, 인지, 또래로 6개의 하위 영역의 총 1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27-28].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RSE 척도를 김정희(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6문항의 단일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29-30].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Maydeu-Olivers와 D’Zurilla(1996)가 개발한 SPSI-R 을 우리말로 번안하여 김현진(2008)이 수정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긍정적 문제지향성, 부정적 문제지향성, 합리적 문제지향성, 충동부주의 문제지향성, 회피 경향의 5개의 하위 영역인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31-32].

3.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종교, 탈북년도, 남한 거주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성별로 남성이 51.1%(114명), 여성 48.9%(109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으로는 10세-13세 14.8%(33명), 14세-17세 22.9%(51명), 18세-21세 32.3%(72명), 21세-25세 30.0%(67명)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50.7%(113명), 천주교 10.8%(24명), 불교 8.1%(18명), 없음이 30.5%(68명)이며, 남한 거주 기간으로는 6개월 이상~1년 미만 42.6%(95명), 1년 이상~2년 미만 30.5%(68명), 2년 이상~3년 미만 10.8%(24명), 3년 이상~4년 미만 13.9%(31명), 4년 이상 2.2%(5명)으로 나타났다.

4. 실증분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적응유연성,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요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으로 나타났고, 각 요인의 신뢰도 값인 Cronbach's α 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입증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변수의 χ^2 , GFI, AGFI, RMR, NFI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고<Table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 대한 표준화 요인부하량(λ)은 0.642에서 0.811로 나타나 잠재변수에 대한 수렴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Table 2>.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계수가 0.262-0.657로 나타났고, 0.90 이상의 상관계수가 나타나면 두 변수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상관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다.

Table 1.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chi^2(p)$	df	GFI	AGFI	CFI	NFI	IFI	TLI	RMR	RMS EA
415.990 (p=0.000)	113	.914	.884	.944	.925	.944	.932	.021	.072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Cronbach's α	
Resilience	→ Spiritual	0.652	FIX	-	0.932	0.697	
	→ Supportive	0.692	0.070	13.731***			.879
	→ Willful	0.716	0.072	14.125***			.728
	→ Strong	0.678	0.079	13.500***			.749
	→ Cognitive	0.650	0.082	13.023***			.866
	→ Peer	0.811	0.075	15.600***			.879
Self-esteem	→ SE 1	0.678	FIX	-	0.931	0.693	
	→ SE 2	0.769	0.079	15.380***			.897
	→ SE 3	0.733	0.048	23.150***			
	→ SE 4	0.746	0.079	14.992***			
	→ SE 5	0.796	0.077	15.825***			
	→ SE 6	0.740	0.079	14.866***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 Positive	0.701	FIX	-	0.913	0.682	
	→ Negative	0.754	0.082	15.980***			.729
	→ Rational	0.794	0.079	16.768***			.893
	→ Careless-ness	0.558	0.075	11.939***			.881
	→ Evasion	0.642	0.076	13.684***			.802
						.810	

***p<.001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χ^2 , GFI, AGFI, RMR, NFI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Table 4>, 탈북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은 자아존중감($\beta=.863$, $p<.01$)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beta=.693$, $p<.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beta=.295$, $p<.01$)에도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search Model fit

$\chi^2(p)$	df	GFI	AGFI	CFI	NFI	IFI	TLI	RMR	RMS EA
414.867 (p=0.000)	113	.914	.888	.957	.929	.945	.931	.022	.069

Table 4.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β	S.E.	C.R.	P	Sig.
Resilience → Self-esteem	0.863	0.078	12.335***	.000	Sig.
Resilience →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0.693	0.087	7.551***	.000	Sig.
Self-esteem →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0.295	0.069	3.631***	.000	Sig.

***p<.001

다음 Table 5는 적응유연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한 분석결과이다. 적응유연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간접효과는 $p<.05$ 의 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Indirect effect analysis of Self-esteem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Resilience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0.693**	0.008	0.255**	0.002	0.948**	0.005

*** $p < .001$, ** $p < .01$

본 연구에서는 적응유연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6과 같다[33].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적응유연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Table 6. Sobel-test result of Self-esteem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Sobel-test	
		Z-value	P
Resilience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4.619	0.000

5. 결론

최근 탈북청소년의 증가로 인해 이들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들을 위한 연구가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남한사회 적응 및 학교적응에 관련된 것들이며, 탈북청소년들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한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고 살아갈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에 이론적 기여점이 있다 하겠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탈북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냄으로써 탈북청소년들의 적응에 있어 보다 새로운 지원방향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탈북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모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응유연성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행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높게 형성되어야 하며, 곧 탈북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간접적으로도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선행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로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 학교 교육에서의 부적응, 사회문화적 측면, 지원정책의 문제들로 나누어 보았지만 사실상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은 심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증상과 불안 증상을 보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가진 경우도 있다. 또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혼란을 느끼고 그 혼란 정도가 남한 청소년들보다 훨씬 더 심하다. 사회문화적으로는 북한과 탈북민에 대한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부정적 인식에 더하여 탈북청소년들은 한국 사회 적응 속도와 관련한 가족 내부의 세대갈등을 겪기도 한다. 또한, 남북한 사람 사이에는 사고방식과 언어적 표현방법의 차이가 있어 탈북청소년들은 남한 친구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게 되며, 이러한 사회부적응 속에 남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문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응유연성과 자아존중감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 및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특성화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기존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문제 및 치료중심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이들의 강점 및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맞는 특성화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특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청소년 지도사 및 상담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Unification, North Korean defectors' policy, <http://www.unikorea.go.kr/>(Search date: July 20, 2017)
- [2] Y. L. Jung, S. H. Yoo,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Thinking Changes Experienced by North Korean Youth Refugees during the Adjustment to South Korean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7, no. 1, pp. 51-75, 2014.
DOI: <https://doi.org/10.14328/MES.2014.03.31.051>
- [3] N. H. Oh, *Case Study about Adjustment in South Korea of Youth Defector*.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3.
- [4] Y. S. Park,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Doctoral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06.
- [5] R. R. Greene, C. Galambos, Y. Lee, "Resilience theory: Theoretical and professional conceptualizations",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vol. 8, no. 4, pp. 75-91, 2004.
DOI: https://doi.org/10.1300/J137v08n04_05
- [6] E. J. Anthony, B. J. Cohler, *The invulnerable child*. Guilford Press., 1987.
- [7] M. Stewart, G. Reid, C. Mangham, "Fostering children's resilience",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vol. 12, no. 1, pp. 21-31, 1997.
DOI: [https://doi.org/10.1016/S0882-5963\(97\)80018-8](https://doi.org/10.1016/S0882-5963(97)80018-8)
- [8] D. Saleebey, "Community development, neighborhood empowerment, and individual resilience", *The Strengths Perspective in Social Work Practice*, vol. 3, pp. 228-246, 2002.
- [9] S. H. Oh,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ce in Poverty: Exploration of Resil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21, pp. 181-205, 2006.
- [10] S. Coopersmith,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Consulting Psychologists Pr., 1967.
- [11] S. J. Kang, *Self-Power Program Development To Empower Saeteomins*. Doctoral Thesis, Hongik University of Korea, 2009.
- [12] J. A. Park,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resilience, job stressors,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organization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of Korea, 2012.
- [13] H. J. Kim,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social problem solving skills of north Korean youths in South Korea*.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of Korea, 2008.
- [14] J. A. Park, *Ibid.*, 2007.
- [15] H. J. Kim, *Ibid.*, 2008.
- [16] J. S. Kim, *A study on factors that effecting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immigrant*.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of Korea, 2006.
- [17] R. E. Mayer, M. C. Wittrock, "Problem solving", *Handbook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 pp. 287-303, 2006.
- [18] H. H. Perlman, *Social casework: A problem-solving proces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 [19] T. J. D'Zurilla, A. M. Nezu, "Social problem solving",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vol. 1, pp. 201-274, 1982.
DOI: <https://doi.org/10.1016/B978-0-12-010601-1.50010-3>
- [20] T. J. D'Zurilla, A. M. Nezu, *op. cit.*, 1982.
- [21] K. N. Eum, *A Study about the adjustment of the North Korean Teenagers in South Korea: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of Korea, 2001.
- [22] C. H. Jang, "Social Work Approach for the Adjustment of children and Youth from North Korea",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vol. 5, pp. 203-235, 2001.
- [23] T. J. D'Zurilla, A. M. Nezu, "Problem-solving therapy", *Handbook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ies*, vol. 3, pp. 197-225, 2010.
- [24] M. S. Kim, *A study on the resilience as influential factors to juvenile delinquents' stress*. Master's Thesis, Pusan University of Korea, 2002.
- [25] M. S. Park,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Immigrant Women's Self-Esteem and Resilience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Psychology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1, no. 5, pp. 393-402, 2011.
DOI: <https://doi.org/10.5392/JKCA.2011.11.5.393>
- [26] B. Y. Baeck,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steem, Sociality, School resilience to create the social capital of adolescence*. Doctoral Thesis, Han Young Theological University of Korea, 2012.
- [27] S. M. Moon, Y. S. Hwang, "Effects of internal developmental assets program on school resilience in high school gir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3, no. 3, pp. 49-77, 2006.
- [28] H. A. Kim, S. H. Kim, "Development of a Resilience Scale for Dislocated North Koreans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8, no. 1, pp. 63-83, 2007.
DOI: <https://doi.org/10.15703/kjc.8.1.200703.63>
- [29] H. Lee, H. I. Jo,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of Korea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6, no. 2, pp. 161-206, 2005.
- [30]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DOI: <https://doi.org/10.1515/9781400876136>
- [31] J. H. Kim, *A study on how the spinal cord injury family function influences the self-esteem of their adolescent*. Master's Thesis, Ewha Women University of Korea, 2001.
- [32] A. Maydeu-Olivares, T. J. D'Zurilla, "A factor-analytic study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An integration of theory and dat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20, no. 2, pp. 115-133, 1996.
DOI: <https://doi.org/10.1007/BF02228030>
- [33] H. J. Kim, *Ibid.*, 2008.
- [34]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 1173,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이 하 원(Ha-Won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외국어대학교 언어인지학과 석사
- 200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관심분야>

언어, 아동심리, 교육

채 경 희(Kyung-Hee Chae)

[정회원]



- 2008년 2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 2010년 8월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수료

<관심분야>

북한사회, 북한교육